

4-6세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과 오류 유형 분석*

김 태 숙** · 정 승 문*** · 권 순 우****

대구대학교 · 고신대학교 · 대구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4-6세 일반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과 문장 따라 말하기에 나타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아동의 현재 구문능력을 평가하여 언어치료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는 김혜시에 거주하는 4-6세의 일반아동 60명을 대상으로 7-9나말 문장 길이와 단문 및 복문 구조에 따른 문장 따라 말하기 검사를 실시하여 수행력을 알아보고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세는 5세와 6세에 비해 7-9나말 단문 및 복문 따라 말하기 수행력 모두가 유의하게 낮았다. 둘째, 5세는 7-9나말 단문 및 복문에서 4세보다 높았고 6세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접속문간의 따라 말하기 수행력은 시간 연결문과 조건 연결문에서 4세와 5세간의 차이가 있었고, 내포문간의 따라 말하기 수행력은 인용절 수행력이 명사절이나 관형절의 4세, 5세, 6세 아동보다 높았으며 명사절 수행력이 관형절이나 인용절의 각 연령보다 낮았다. 넷째, 명사절, 관형절, 인용절은 4세보다 5세가 높게 나타났고, 5세와 6세 사이에서는 5세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4-6세 모두 내포문보다 접속문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연령에 따른 오류 유형 분석 결과 4-6세에서 동일하게 생략, 대치, 첨가 순으로 높은 오류수를 나타내었다. 일곱째, 문장 성분에 따른 오류 유형 분석은 4-6세 모두 부사어-생략이 가장 많았고, 서술어-대치는 6세에서 오류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장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구문발달은 5세를 전후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4-6세 아동의 언어치료 시 4세와 5세의 차이를 고려한 언어 중재 계획이 필요하고, 언어발달지체 아동에게는 다양한 의미적 유형을 습득시켜 나중에 좀 더 복잡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문법, 통사론, 문법관계, 변형

* 이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췌·수정한 것임.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박사과정 (kts4025@hanmail.net)

*** 공동저자, 고신대학교 언어재활과 교수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ksww1114@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아동은 2세가 지나고 3세경에 이르면 기본적인 문법구조를 지닌 문장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나 이때에는 문장 내 낱말의 순서나 정확한 뜻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발생 가능성에 기초하여 이해한다.

아동은 3세 이후에 비로소 어순에 기초하여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 시기에는 문장 내에 포함된 문법형태소나 구문구조, 그리고 낱말 배열순서 등에 의존하여 문장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문법형태소의 기능이나 복잡한 구문구조를 가진 문장을 이해할 때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4, 5세가 지나면서 구나 절이 포함된 비교적 복잡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문법형태소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는 오류도 점차 감소한다. 또한 단순한 구조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대화에서도 대화상대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배소영, 1996). 이 시기 초기에는 주로 병렬형으로 나열한 문장이 주를 이루나, 점차 대립이나 계기, 인과적 연결 어미를 사용한 다양한 복문이 나타난다(서희선, 1999). 또 전환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규칙한 문장의 형태가 차츰 낱말과 낱말 간에 의미적 관계가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지기 시작한다. 이때 아동은 성인의 문장을 발달기의 문법적 지식으로 따라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아직 내재하지 못한 체계들은 생략 또는 대치되어 표면 구조로 나타나게 된다(McDade et al., 1982).

이러한 아동의 구문발달은 문장길이와 문장구조의 복잡정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나타나는데 2-3세를 전후해서 두 낱말 발화를 하던 아동들은 그 후 곧 세 낱말, 네 낱말 발화 단계로 접어든다(이승복, 1994). 또한 문장구조의 복잡성은 복문의 출현으로 대표되는데 이러한 복문의 출현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는 문법형태소와 더불어 아동의 문장형태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복문은 접속에 의한 복문과 내포에 의한 복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접속문과 내포문은 거의 같은 시기에 출현하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내포문의 양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였다(남기심 외, 1998). 또한 아동의 구문은 점진적이고 중첩적인 형식으로 발달하여 4-5세 정도가 되면 모국어에 필요한 대부분의 구문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5-6세가 지나면 아동과 성인 문법 간의 차이는 자발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정동빈, 1994). 물론 5세 이후에서 10-15세까지는 좀 더 복잡한 문장을 익히고, 세련화 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문장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구문발달은 5세를 전후하여 완성된다고 하였다(Van Riper, 1984). 그러나 언어발달지체 아동들은 이러한 구문을 다양하게 확장해서 사용하는 능력에 결함을 나타내며, 이들에게도 다양한 의미적 유형을 습득시켜 나중에

복잡한 문장을 만드는 기초적인 능력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동의 구문발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로 문장 따라 말하기나 문장완성하기 등을 이용하는데 문장 따라 말하기는 문장모방이나 유도모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검사자가 시범을 보인 문장을 피검사자가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문장 따라 말하기는 많은 검사의 기본이 되거나 여러 공식 검사의 보조검사문항으로 제공되고 있다(Newcomer, & Hammill, 1988).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문장 따라 말하기가 아동의 자발화 능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문장 따라 말하기는 자발화 수집방법보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아동의 구문발달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언고자 하는 문장구조의 구성여부와 평가가 정확하며, 실시절차와 채점이 효율적이며, 검사자를 쉽게 훈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Hale-Haniff, & Siegel, 1981). 따라서 본 연구는 4-6세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과 이에 대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향후 일반 아동 및 언어발달지체 아동들을 위한 언어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일반 아동 및 언어발달지체 아동들을 위한 구문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언어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과 더불어 오류 유형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4-6세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에서 연령과 문장길이에 따라 수행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둘째, 4-6세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에서 문장구조에 따라 연령이 증가하면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셋째, 4-6세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오류 유형 분석에서 연령과 문장성분에 따른 오류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4세부터 6세까지의 일반아동 60명을 김해시에 위치한 ○○유치원에서 선정하여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은 4-5세 정도가 되면 모국어에 필요한 대부분의 구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정동빈(1994)의 연구에서 몇몇 아동들은 3세에 10-11달말 길이로 단문의 모든 주요 변형을 산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5-6세가 지나면 아동과 성인 문법 간의 차이는 자발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영태(2002)의 연구에서도 최장 낱말길이는 2세에서 5.83으로 시작하여 3개월 간격의 연령집단에 따라 7.00, 8.07, 10.73, 11.70, 14.37로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4-6세 아동에게 7-9달말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취학 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김영태 외, 2003)로 측정된 정상 범위 \pm 표준편차 이내에 포함된 아동으로 부모나 교사에 의하여 인지, 행동, 정서, 청력 및 기질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선정하였다(표 1).

<표 1> 연구 대상

연령	월령	인원(명)
4세	37개월 - 48개월	20
5세	49개월 - 60개월	20
6세	61개월 - 72개월	20

1) 검사 도구

문장에 포함된 낱말은 남기심, 고영근(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낱말들을 참고하였고, 김영태(2002), 김정숙(2011), 박은주(2003), 백주희(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낱말과 안지숙(2000)이 개발한 문장 따라 말하기 과제, 홍세미(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낱말을 참고하였다. 문장 따라 말하기 과제를 사용할 때에는 대상 아동의 언어수준에 적절한 문장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대상 아동의 언어능력 그 이상의 문장을 사용하면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검증을 위해 중학교 국어교사 2명, 1급 언어치료사 2명, 그리고 유치원 교사 2명으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문장 따라

말하기 평가 문장을 최종 개발하였다. 검사 문장은 연습문장 2개와 검사문장 30개로 총 32개의 문장으로 구성하였고, 30개의 실험자극 문장은 문장의 길이와 문장의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문장 길이 측면에서는 7나말, 8나말, 9나말 단문을 포함하였고, 문장 구조 측면에서는 7나말 단문, 8나말 단문, 9나말 단문과 9나말 접속문 및 내포문을 포함하여 비교하였으며 문장의 단위는 나말로 하여 가장 짧은 문장의 길이를 7나말 단문으로 가장 긴 문장의 길이를 9나말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접속문, 내포문은 모두 9나말로 하여 문장구조를 비교하게 될 문장 종류의 나말 수 차이가 없게 하였고,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그 각각의 나말 길이 내의 음절수를 7나말 단문에서는 15음절, 8나말 단문에서는 16음절, 9나말 단문과 복문에서 각각 17음절로 통제하였다.

각각의 난이도 수준에 따라 2가지 구문 구조를 선택하여 9나말 복문은 접속문일 때 조건 연결, 시간 연결, 이유 연결로 각 2문장씩 총 6문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내포문일 경우 4-6세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명사절, 관형절, 인용절로 각 2문장씩 6문장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9나말 복문에서도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나누었고 접속문에서도 또다시 조건절, 시간절, 이유절로 세분화하고 내포문에서는 명사절, 관형절, 인용절로 세분화하여 문장 따라 말하기 평가문장을 개발하였다. 또한 본 검사를 하기 전 4-6세 아동 6명에게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많은 오류를 보이는 문장이나 지나치게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문장에 대해서는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2) 검사 방법

검사는 조용한 방에서 연구자와 아동만이 참가한 상태에서 연구자와 아동이 책상을 가운데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앉아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동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 번씩 문장을 말해주면 잘 듣고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한 번씩만 말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라고 주의 사항을 말해준 후에 2개의 연습문항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이 검사에 익숙해지도록 도왔다. 문장 따라 말하기 과제의 각 문항은 순서대로 제시하였고 아동이 문장을 잘 따라할 때마다 잘 했다고 격려해주었다. 18문장을 따라 말했을 때 1분 정도 쉬게 하여 아동이 지치지 않게 하였으며 아동이 문장을 따라하지 못해서 다시 들려주기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문장을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었다. 또한 아동이 문장을 말하는 중간에 자발적으로 수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아동이 수정한 부분을 인정하여 수정하기 전에 말한 부분은 괄호 안에 넣어 기록하였다. 검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동의 반응을 검사지에 전사하고 추후 분석을 위해 SONY IC RECORDER ICD-UX512F(2GB)로 녹음하였다.

3)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 분석

<표 2> 문장 따라 말하기의 분석방법

분석 방법	점 수		비 고
1 문장에 대한 아동의 반응	정 1	오 0	통상적 구어형태, 오조음시 정반응
2 목표 구조의 오류 유무	있다	없다	특정 목표 구조의 오류 유무만 봄
3 오류 유형 분석	생 략	대 치 첨 가	각각의 오류 낱말 수를 세어 계산

Schwartz와 Daly(1976)는 문장 따라 말하기의 분석 방법을 <표 2>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각 문장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정오로 기록하여 총점을 내는 방법이다. 여러 공식 검사들은 효율성을 이유로 이러한 분석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특정 목표구조로 한정하여 그 구조의 오류 유무만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은 문장 따라 말하기 과제에서 획득한 점수로 평가하였고, 문장 따라 말하기의 점수를 주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장을 정확하게 따라 말하면 해당 문항에 1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0점을 주었다. 문장을 그대로 정확하게 따라 말하지는 못했으나 문장이 포함한 낱말을 구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따라 말했을 경우 1점을 주었다. 예를 들어 “아기”를 구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애기”로 대치하는 경우나 “것을”을 “걸”로 말하는 것처럼 축약 가능한 특정 구조로 산출한 경우도 1점을 주었다. 오조음을 산출한 경우도 오류로 간주하지 않고 1점을 주었다. 예를 들어 “엄마가 공원을 매일 걸어서 산책해요”를 “엄마가 공원을 매일 걸어서 찬책해요”라고 따라 말한 경우 1점을 주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 속하지 않고 문장에 속한 낱말을 생략, 대치, 첨가하는 경우는 오류로 간주하고 0점을 주었다. 문장 따라 말하기 과제의 문장 수가 총 30개였으므로 각 난이도 당 단문이 6점이 만점이고 복문도 6점이 만점으로 총30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의 반응을 전사한 기록지를 보고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점수를 계산하였다. 오류 유형 분석은 생략, 대치, 첨가로 나누어 각각의 오류 낱말수를 세어 기록하였으며 이때 연구자가 제시한 문장에 다른 낱말을 더하여 따라 말하면 첨가, 문장에 속한 낱말을 삭제하여 따라 말하면 생략, 문장에 속한 낱말을 다른 낱말로 바꾸어 따라 말하면 대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위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였는데 이는 우리말이 영어와 달리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밥을 먹는다.”를 “밥을 철수가 먹는다.”로 어순이 바뀌어도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장성분을 표시하는 장치가 어순이 아닌 격조사이므로, 한국어의 어순은 상대적으로 그 변화가 자유롭다(이봉원, 2008). 생략, 대치, 첨가의 오류 유형은 전체 252개의 낱말 중에서 차지하는 오류 수를 각각 기록 하였으며 이것은 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 성분으로 각각 나누어 오류수를 기록하였다(부록 2).

2. 자료의 분석 방법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SPSS,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기술 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와 사후검정(Tukey test) 등을 실시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령과 문장 길이에 따른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 분석

〈표 3〉 연령에 따른 문장 길이 수행력

문장	문장 길이 수행력* (평균±표준편차)			p
	4세	5세	6세	
7낱말 ¹⁾	2.35±1.92 ^a	4.35±1.42 ^b	3.60±1.81 ^{a,b}	.002**
8낱말 ¹⁾	1.15±1.66 ^a	2.95±1.96 ^b	2.70±2.20 ^b	.010**
9낱말 ²⁾	2.7±4.31 ^a	7.45±5.31 ^b	6.10±4.85 ^{a,b}	.009**

¹⁾총점: 6점, ²⁾총점: 18점, a,b : 연령 간 유의한 차이, * $p < .05$, ** $p < .01$, *** $p < .001$

연령과 문장 길이에 따른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에 대한 결과는 7낱말, 8낱말, 9낱말 문장에 대해서 4세와 5세 사이에는 5세가 더 높고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5세와 6세 사이에는 5세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연령과 문장 구조에 따른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 분석

1) 연령에 따른 9낱말 단문 및 복문 따라 말하기 수행력

〈표 4〉 연령에 따른 9낱말 문장 수행력

문 장	9낱말 문장 수행력*(평균±표준편차)			p
	4세	5세	6세	
단문 ¹⁾	0.5±1.24 ^a	2.05±2.06 ^b	1.75±1.80 ^{a,b}	.015*
복문 ²⁾	1.30±1.87 ^a	3.20±3.04 ^b	2.60±1.93 ^{a,b}	.010**

¹⁾총점: 6점, ²⁾총점: 12점, a.b : 연령 간 유의한 차이, * $p < .05$, ** $p < .01$, *** $p < .001$

연령과 문장 구조에 따른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의 결과 단문과 복문에서 4세와 5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나 5세와 6세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4세, 5세, 6세 모두 9낱말 복문이 9낱말 단문보다 수행력이 높았다.

2) 연령에 따른 9낱말 접속문 및 내포문 따라 말하기 수행력

〈표 5〉 연령에 따른 9낱말 접속문 및 내포문 수행력

문 장	9낱말 복문 수행력*(평균±표준편차)			p
	4세	5세	6세	
접속문 ¹⁾	1.30±1.87 ^a	3.20±3.04 ^b	2.60±1.93 ^{a,b}	.010**
내포문 ¹⁾	0.9±1.41 ^a	2.20±1.88 ^b	1.75±1.71 ^{a,b}	.053*

¹⁾총점: 6점, a.b : 연령 간 유의한 차이, * $p < .05$, ** $p < .01$, *** $p < .001$

연령에 따른 9낱말 접속문 및 내포문 따라 말하기 수행력의 결과 접속문과 내포문에서 4세와 5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나 5세와 6세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세, 5세, 6세 모두 내포문보다 접속문 수행력이 더 높았다.

3) 연령에 따른 9날말 접속문간의 따라 말하기 수행력

〈표 6〉 연령에 따른 9날말 접속문 수행력

문장	9날말 접속문 수행력* (평균±표준편차)			p
	4세	5세	6세	
시간 연결문 ¹⁾	0.4±0.68 ^a	1.10±0.85 ^b	0.9±0.78 ^{a,b}	.018**
조건 연결문 ¹⁾	0.45±0.76 ^a	1.15±0.81 ^b	1.0±0.92 ^{a,b}	.025**
이유 연결문 ¹⁾	0.45±0.69	0.95±0.76	0.7±0.66	.088

¹⁾총점: 6점, a,b : 연령 간 유의한 차이, * $p < .05$, ** $p < .01$, *** $p < .001$

연령에 따른 9날말 접속문간의 따라 말하기 수행력 결과 시간 연결문과 조건 연결문에서 4세와 5세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5세와 6세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연령에 따른 9날말 내포문간의 따라 말하기 수행력

〈표 7〉 연령에 따른 9날말 내포문 수행력

문장	9날말 내포문 수행력* (평균±표준편차)			p
	4세	5세	6세	
명사절 ¹⁾	0.1±0.31	0.35±0.67	0.25±0.55	.333
관형절 ¹⁾	0.35±0.59	0.9±0.97	0.8±0.95	.104
인용절 ¹⁾	0.45±0.76	0.95±0.76	0.7±0.66	.103

¹⁾총점: 6점, a,b : 연령 간 유의한 차이, * $p < .05$, ** $p < .01$, *** $p < .001$

연령에 따른 9날말 내포문 간의 따라 말하기 수행력 결과 인용절 수행력이 각 연령마다 동일하게 높았으나 관형절 수행력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명사절 수행력이 각 연령마다 동일하게 가장 낮았고 명사절, 관형절, 인용절은 4세보다 5세가 모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5세와 6세의 수행력에서는 5세가 6세보다 각 유형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5)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 점수

<표 8> 문장 따라 말하기 검사 점수

연령 날말	연령			합계
	4세 ¹⁾	5세 ¹⁾	6세 ¹⁾	
7날말 단문	47	87	77	211
8날말 단문	23	59	54	136
9날말 단문	10	41	35	86
9날말 접속문	26	64	52	142
(조건연결)	(9)	(23)	(20)	(52)
(시간연결)	(8)	(22)	(18)	(48)
(이유연결)	(9)	(19)	(14)	(42)
9날말 내포문	18	44	35	97
(명사절)	(2)	(7)	(5)	(14)
(관형절)	(7)	(18)	(16)	(41)
(인용절)	(9)	(19)	(14)	(42)
합계	124	295	253	672

¹⁾총점: 600점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 점수는 4세가 600점 만점에 124점을 얻었고, 5세는 600점 만점에 295점을 그리고 6세는 600점 만점에 253점을 얻었다.

3.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에서 오류유형 분석

1) 연령에 따른 오류유형 분석

<표 9> 생략, 대치, 첨가 오류유형 분석

오류 항목	오류유형* (평균±표준편차)			p
	4세	5세	6세	
생략	45.15±30.08 ^a	15.55±12.06 ^b	19.30±21.08 ^b	.000
대치	5.45±5.15	6.60±5.0	8.45±5.84	.171
첨가	0.6±0.995	0.9±1.16	0.5±0.75	.503

¹⁾a.b : 연령 간 유의한 차이, * $p < .05$, ** $p < .01$, *** $p < .001$

연령에 따른 오류유형 분석 결과 4세-6세에서 동일하게 생략, 대치, 첨가 순으로 높은 오류수를 나타내었다. 생략은 4세와 5세, 4세와 6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세와 6세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치와 첨가는 연령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문장성분에 따른 오류유형 분석

<표 10>

문장성분에 따른 오류유형 분석

오류 항목	문장 성분	문장성분에 따른 오류유형*(평균±표준편차)			p
		4세	5세	6세	
생략	주어	9.45±9.90 ^a	1.05±1.23 ^b	1.80±2.63 ^b	.000
	목적어	8.25±5.84 ^a	2.6±2.33 ^b	3.3±4.89 ^{a,b}	.000**
	서술어	5.45±4.12 ^a	1.80±1.85 ^b	3.05±4.62 ^{a,b}	.010**
	관형어	7.60±5.38 ^a	3.15±3.29 ^b	2.9±3.55 ^b	.001
	부사어	14.9±8.77 ^a	6.95±5.28 ^b	8.40±6.97 ^b	.002
대치	주어	0.7±1.03	0.5±0.83	1.25±1.65	.171
	목적어	0.7±0.87	0.75±0.72	1.05±1.23	.467
	서술어	1.85±2.21 ^a	2.45±2.40 ^{a,b}	3.90±2.86 ^b	.035**
	관형어	0.95±1.19	1.0±1.29	0.65±0.81	.568
	부사어	1.20±1.67	1.85±1.84	1.80±1.54	.406
첨가	주어	0.15±0.49	0.05±0.22	0.0±0.00	.306
	목적어	0.2±0.52	0.15±0.36	0.25±0.44	.781
	서술어	0.05±0.22	0.05±0.22	0.2±0.41	.196
	관형어	0.1±0.31	0.3±0.47	0.1±0.31	.152
	부사어	0.15±0.37 ^{a,b}	0.35±0.59 ^a	0.0±0.0 ^b	.027**

¹⁾a,b : 연령 간 유의한 차이, * $p < .05$, ** $p < .01$, *** $p < .001$

문장성분에 따른 오류유형 분석 결과 생략의 모든 문장성분에서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주어, 관형어, 부사어생략은 4세와 5세, 4세와 6세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치에서는 서술어 대치가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4세와 6세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첨가 중에서는 부사어 첨가가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5세와 6세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6세 모두 부사어의 생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어와 관형어의 생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3) 문장 성분별 오류유형과 오류 수

<표 11> 문장 성분별 오류유형과 오류 수

문장 성분	연령	4 세			5 세			6 세			합 계
		생략	대치	첨가	생략	대치	첨가	생략	대치	첨가	
주 어		189	14	3	21	11	1	36	25	0	300
목적어		165	14	4	52	15	3	66	21	5	345
서술어		109	7	1	36	49	1	61	78	4	376
부사어		298	24	3	139	37	7	168	36	0	712
관형어		152	19	2	63	20	6	58	13	2	335
합 계		913	108	13	311	132	18	389	173	11	2068

문장 성분별 오류유형과 오류 수는 4-6세에서 생략, 대치, 첨가 순으로 오류수가 많았다. 부사어는 생략이 4-6세에서 오류 수가 가장 많았다.

IV. 논 의

본 연구의 평가 자료는 남기심, 고영근(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낱말들을 참고하였고, 김영태(2002), 김정숙(2011), 박은주(2003), 백주희(2008)의 연구와 안지숙(2000)이 개발한 문장 따라 말하기 과제와 홍세미(2009)의 연구에서 참고하였다. 문장 따라 말하기 과제를 사용할 때에는 대상 아동의 언어수준에 적절한 문장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대상 아동의 언어능력 그 이상의 문장을 사용하면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료의 검증을 위해 중학교 국어교사 2명, 1급 언어치료사 2명, 그리고 유치원 교사 2명의 자문을 구하여 최종 개발하였다.

Schwartz와 Daly(1976)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문장 따라 말하기 과제에 포함되는 문법적 항목들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일반 아동 5세가 산출할 수 있는 정도의 구문구조를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5세에 이르면 대부분의 구문구조를 습득하기 때문이다. 둘째,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오류구조를 포함해야 한다. 셋째, 각 유형의 문법적 구조는 충분히 측정되어야 하지만 문장의 전체수가 50-55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Schwartz와 Daly(1976)는 문장 따라 말하기의 분석 방법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각

문장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정오로 기록하여 총점을 내는 방법이다. 여러 공식 검사들은 효율성을 이유로 이러한 분석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특정 목표 구조로 한정하여 그 구조의 오류 유무만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오류의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을 낱말로 분석하여 각 문장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정오로 기록하여 총점을 냈으며, 오류 유형은 문장성분별로 분석하였고, 오류 항목은 생략, 대치, 첨가로 분류하였다. 오류 항목 중 전위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였는데 이는 우리말이 영어와 달리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이를 좋아해”와 “영이를 철수가 좋아해”라고 표현해도 의미상 변화는 없으며 문장성분을 표시하는 장치가 어순이 아닌 격조사이므로 우리말의 어순은 상대적으로 그 변화가 자유롭다(이봉원, 2008).

이에 본 연구는 김해지역의 4-6세 일반아동 60명을 대상으로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과 문장 따라 말하기에 나타난 오류 유형의 특성을 알아보고, 일반 아동과 언어 발달이 지체된 아동들에게 언어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의 비교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문장 길이에 따른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의 결과는 7나말, 8나말, 9나말 모두 4세, 5세, 6세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나말, 8나말, 9나말 문장 수행력에 대해서 4세와 5세 사이에는 5세가 더 높아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5세와 6세 사이에는 5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은주(2003)의 연구에서는 4세에 77%, 5세에 82%, 6세에 87%, 7세에 90%, 8세에 95%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은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것과 또 언어연령을 3세로 한정된 안지숙(2000)의 연구에서 3나말, 4나말, 5나말순으로 문장 길이가 길수록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은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김정숙(2011)의 연구에서 3어절의 경우 4세, 5세는 비슷한 수행력을 나타냈지만 5세가 더 높았고, 3세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장 길이 수행력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이 김해지역 동일 집단 내 4-6세로 구성된 점과 대상 아동의 수가 적었던 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둘째, 연령과 문장 구조에 따른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의 결과 9나말 단문의 경우 4세, 5세는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5세와 6세 사이에는 5세가 6세보다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9나말 복문이 9나말 단문보다 연령 각각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는 김정숙(2011)의 연구에서 9나말 복문에 사용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비중이 부사어나 관형어보다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령이 어린 아동일수록 문장 따라 말하기에서 대부분 주성분 위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고, 김소영

(2014)의 연구에서 5-6세 아동의 경우 단일자극과 동시자극 모두에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관형격조사 순으로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의 출현 순위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부사격조사와 관형격조사의 출현 순위가 낮게 나왔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연령에 따른 9낱말 접속문 및 내포문 따라 말하기 수행력 결과는 접속문이나 내포문에 대한 4-6세간에 차이가 나타났고, 접속문에서는 4세와 5세간의 차이가 나타났고 5세와 6세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4세와 5세간에는 차이가 나타났지만 5세와 6세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6세 모두 내포문 수행력보다 접속문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재연(2004)의 연구에서 언어연령을 3세로 한정하여 5어절 단문, 접속 복문, 내포 복문 순으로 따라 말하기 수행력은 낮아졌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 안지숙(2000)의 연구에서 3세 아동의 수행력은 5낱말 접속문이 5낱말 내포문보다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안지숙(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5낱말 단문의 대부분은 형식상으로는 단문일 수 있으나 그 특성상 관계관형절 내포복문의 성격 때문일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희란(2010)의 3세 9개월~6세 4개월의 아동 5명을 대상으로 학령 전 아동의 구문 표현 발달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 3세 시기부터 접속문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산출되고 4-5세경 활발해졌고, 내포문의 경우는 5세를 전후해서 급증하게 산출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김정숙(2011)의 연구에서 4-5세는 5어절 접속문이 5어절 내포문보다 높은 수행력을 보였으나 3세의 경우 5어절 내포문이 5어절 접속문보다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고 한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김정숙(2011)의 연구에서 3세 아동이 5어절 접속문을 주절 위주로 따라 말하였고, 종속절은 생략하였기 때문에 5어절 접속문의 오류수가 높게 나왔다고 판단되며 박은주(2003)의 연구에서 문장의 길이와 구조에 따른 4-8세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에서 안긴문장과 이어진 문장에 대한 수행력이 연령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결과들마다 문장을 구성 할 때 구성된 문항 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구문 복잡성의 정도가 각 연구마다 일치 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에 따른 9낱말 접속문간의 따라 말하기 수행력의 결과는 4세와 5세에서는 차이가 있고, 5세와 6세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아동의 연결어미 발달 순서를 반영하고 있으며, 김정숙(2011)의 연구에서 4세와 5세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3세는 4-5세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연령에 따른 내포문간의 수행력 결과는 인용절 수행력이 각 연령마다 동일하게 높았으나 관형절 수행력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명사절 수행력이 각 연령마다

동일하게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명사절, 관형절, 인용절은 4세보다 5세가 높게 나타났고 5세가 6세보다 각 유형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도하 등(1999)의 연구에서 관형절은 연령의 추이에 따라 출현 빈도가 증가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나 배소영(1995)의 연구에서 3세가 되면 우리말의 이중 주어 특성으로 서술절이 일찍 발달하고 초기에 나타나는 인용절은 점차 줄어든다는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검사문장에 간접과 직접의 모든 인용을 포함하지 않고 직접 인용만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연령에 따른 오류유형 분석 결과는 4-6세에서 동일하게 생략, 대치, 첨가 순으로 높은 오류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박은주(2003)의 생략 9.2%, 대치 6.4%, 첨가 1.2% 순으로 오류를 나타내었다는 것과 이재연(2004)의 생략 8.03%, 대치 2.27%, 첨가 0.30% 순으로 오류를 나타내었다는 연구결과와 이정미 등(2014)의 문장 따라 말하기에서 나타난 단순 언어장애 아동의 조사 처리 능력 연구에서 단순 언어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두 집단 모두 생략, 대치, 첨가 순으로 오류유형을 보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으며, 김후비(2011)의 연구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문장길이와 구조에 따른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에서도 생략, 대치, 첨가의 순으로 높은 오류를 보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생략에서 4세가 5-6세에 비해 많은 오류를 보였던 것은 문장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문법적 수행력 부족을 나타낸 것이며, 대치에서 5-6세가 4세에 비해 오류가 많은 것은 의미가 비슷한 단어로 대치하거나 다른 시제로 대치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문장 성분에 따른 오류유형 분석은 주어-생략, 목적어-생략, 서술어-생략, 관형어-생략, 부사어-생략, 서술어-대치, 부사어-첨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4세는 5-6세에 비해 높은 오류를 나타내었고, 6세는 5세보다 대부분의 문장성분에서 높은 오류를 보였으나 관형어는 4-5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4-5세에서 관형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성분으로 이 성분이 나타나지 않아도 문장의 실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쉽게 생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6세 모두에서 부사어의 생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박은주(2003)의 연구에서 생략은 26.3%, 대치는 9.6%, 첨가는 3.7%라는 결과와 일치하였고, 이정미 등(2014)의 연구에서 단순 언어장애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부사격 조사가 포함된 문장 따라 말하기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으며 김후비(2011)의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문장길이와 구조에 따른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 연구에서 부사어에 대한 생략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으며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어나 관형어에 대한 생략이 많았기 때문에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부사어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다른 성분에 달려 있어서 쉽게 생략하기 때문이다. 4-6세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오류유형 분석에서 4세와 5세, 6세간 문장 길이, 문장구조, 접속문과 내포문, 문장성분에 따른 오류유형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5세와 6세간에는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cDade 등(1982)의 아동은 성인의 문장을 발달기의 문법적 지식으로 따라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아직 내재하지 못한 체계들은 생략 또는 대치되어 표면 구조로 나타나게 된다는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4-6세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 및 오류 유형 특성은 4세는 5세와 6세에 비해 가장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4세 아동에게는 아직 문법적 지식이 내재되지 못하여 생략이나 대치 등의 오류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5세는 4세보다는 높은 수행력을 나타내었고, 6세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5세 아동이 대부분 문법적으로 완성된 단계이고, 또 문장을 따라 말하기 전 검사자의 지시를 잘 이해하고 검사 시 정확하게 따라 말하기 위한 집중도가 높았던 점도 수행력에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6세는 연령이 증가하여도 5세와 비교 시 큰 변화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6세 아동들은 이미 자신에게 내재된 문법적 지식을 재해석하여 유의미한 낱말로 변형하거나 대치시키는 기교를 많이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점수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4-6세 아동의 구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언어중재는 4-5세 전후가 적합하며 이는 언어규칙을 일반화 하는 능력에 결함이 있고 문법 습득이 지체된 언어 발달지체 아동들에게도 일반 아동의 구문발달에 기초한 언어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반 아동의 구문적 특성을 조사하여 아동의 구문 능력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하여 언어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과 더불어 오류 유형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4-6세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에서 4세와 5세간은 연령이 증가하면 길이가 길어져도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은 증가하였으나 5세와 6세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4세 아동에게 아직은 문법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대부분 생략이나 대치 등의 오류를 나타내는 특성이 있었다. 5세는 4세와 6세에 비해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5세 아동에게는 모국어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5세 아동들은 검사자의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장을 따라 말 할 때 집중하는 특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도 높은 수행력을 이끌어 내는 한 요인일 것이다. 하지만 5-6세간의 수행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6세 아동들은 이미 자신에게 내재된 구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들 나름대로의 융통성을 가지고 의미가 비슷한 낱말로 변형 또는 대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사자가 지시 한대로 앵무새 처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의미의 낱말로 변형하거나 대치시키는 기교를 사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둘째, 연령과 문장 구조에 따른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은 4세와 5세 사이에는 연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5세와 6세간에는 수행력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4세 아동들이 S-O-V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문장 따라 말하기를 하였는데 꾸며주는 말인 관형어나 부사어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또 부사어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다른 성분에 딸려 있어서 쉽게 생략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5세 아동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개 이상 포함되는 문장 구성이 가능하며 구조 면에서는 성인에 가까운 발화형태를 보이는 특성이 나타났다. 6세에서는 이미 내재된 구문능력을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의미가 유사한 낱말로 대치 또는 변형시킨 문장으로 따라 말하는 특성 때문에 점수가 낮아서 5세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9낱말 문장길이에서는 단문보다 복문 수행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접속문의 출현이 두 낱말의 의미 관계가 세 낱말의 의미관계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듯이 접속문의 발달도 연속적이어서 이미 두 낱말이나 세 낱말의 의미관계에서 접속현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문에서 단순하게 나열된 주어-관형어-부사어-목적어-서술어 등의 독립된 문장구성보다 겹문장에서 연결어미를 포함하는 형태의 조건절(주어-부사어-서술어)-관형어-목적어-서술어 등의 접속사 사용이 더 빠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셋째, 오류유형분석 결과는 4-6세에서 동일하게 생략, 대치, 첨가 순으로 높은 오류수를 나타냈으며, 생략에서는 4세, 6세, 5세 순으로 높은 오류를 나타냈고 대치는 4-5세보다 6세가 높은 오류를 나타내었다. 문장 성분에 따른 오류유형 분석 결과는 주어-생략, 목적어-생략, 서술어-생략, 관형어-생략, 부사어-생략, 서술어-대치, 부사어-첨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4-6세 모두 부사어-생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술어-대치가 높은 오류를 보였는데 4-5세보다 6세가 높은 오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장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구문발달은 5세를 전후하여 완성된다는 사실을 재확인 하였고 4-6세 아동의 언어치료 시 6세보다는 4세와 5세의 차이를 고려한 언어중재 계획이 필요하고, 언어발달지체 아동에게는 다양한 의미적 유형을 습득시켜 나중에 좀 더 복잡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4-6세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과 오류유형 분석에서 얻어진 결론에 기초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4-6세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하면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도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김정숙, 2011; 박은주, 2003; 안지숙, 2000)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에서 일반 아동 60명을 김해지역의 동일 집단 내에서 표집 하였기 때문에 전국 기준을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을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상자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학력수준 등의 통제에 제한점이 있어 향후 이 부분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오류유형 분석에서 문장성분별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사와 조사 이외 오류 유형 비율과 비교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향후 다양한 유형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도하, 정분선 (1999). 2-5세 유아의 복문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치료학회 제9회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143-152.
- 김소영 (2014). 문장 따라 말하기 과제의 자극유형에 따른 비장애아동의 격조사 산출능력 비교.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태 (2002). **아동 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 (2003).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척도**. 서울: 서울 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정숙, 정승문 (2011). 문장의 길이와 구조에 따른 3-5세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 **언어치료연구**, 20(2), 19-36.
- 김후비. (2011).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문장길이와 구조에 따른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기심, 고영근 (1997).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 출판사.
- 남기심, 이정민, 이홍배 (1998). **언어학 개론**. 서울: 탑 출판사.
- 박은주 (2003). 문장 길이와 구조에 따른 4-8세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소영 (1995). **한국 아동의 언어발달: 진단의 일차적 자료**. 언어치료전문요원.
- 배소영, 이승환 (1996). 한국 아동의 이야기 산출 연구(1). **말-언어장애 연구**, 1, 34-67.

- 백주희 (2008). 문장 따라 말하기 활동을 이용한 복문지도 프로그램이 정인지체아동의 구문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희선 (1999). 2-5세 정상 아동의 연결어미 발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숙 (2000). 단순 언어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구문적 난이도에 따른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 및 명료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원 (2008). **언어치료사를 위한 한국어문법**. 충남: 나사렛언어청각센터.
- 이승복 (1994). **어린이를 위한 언어획득과 발달**. 서울: 정민사.
- 이정미 (2001). 문장 따라 말하기에 나타난 단순 언어장애 아동의 조사처리 능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 최소영, 황민아 (2014). 문장 따라 말하기에서 나타난 단순 언어장애 아동의 조사 처리 능력. **언어청각장애연구**, 19(4), 17-29.
- 이재연 (2004). 정상아동과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 비교.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란 (2010). 학령 전 아동의 구문표현력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언어치료연구**, 19(1), 179-192.
- 정동빈 (1994). **언어발달지도**. 서울: 한국문화사.
- 조명한 (1984). **한국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책략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홍세미 (2009). 4세 조음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말속도와 문장 길이에 따른 따라 말하기 능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ry-Luterman, L., & Bar, A. (1971). The diagnostic significance of sentence repetition for language-impaired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36: 29-39.
- Hale-Haniff, M., Siegel, G. M. (1981) *The effect of context on verbal elicited imitation. JSHD. 46: 27-30.*
- McDade, H. L., Simpson, M. A., & Lamb, D. E. (1982). The use of elicited imitation as a measure of expressive grammar: *A question of validity. JSHD. 47: 19-24.*
- Menyuk, P. A. (1963). preliminary evaluation of grammatical capacity in children.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 429-439.
- Muma, J. (1978). *Language Handboo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Newcomer, P. L., & Hammill, D. D. (1988). *The Test of Language Development*, Austin, TX: Empiric Press.
- Schwartz, A. H., & Daly, D. A. (1976). Some explicit guidelines for constructing elicited Imitation task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7: 33-40.
- Van Riper, C. (1984).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부록 1>

문장 따라 말하기 검사지

아 동 명 : (남 · 여) 생년월일 : (세 개월)

번호	검사 문장	아동 반응	점 수	
연습	아기가 잠을 자요.			
	동생이 우유를 먹어요.			
1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많이 만들어요.		1	0
2	아기가 따뜻한 우유를 맛있게 먹어요.		1	0
3	아버지가 회사를 급하게 뛰어서 가요.		1	0
4	엄마가 공원을 매일 걸어서 산책해요.		1	0
5	누나가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요.		1	0
6	할머니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요.		1	0
7달말 단문합계				
7	고양이가 맛있는 생선을 혼자만 먹어요.		1	0
8	나는 긴 머리카락을 매일 깨끗이 감아요.		1	0
9	귀여운 동생이 방에서 소꿉놀이를 해요.		1	0
10	작은 형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요.		1	0
11	하마가 엉덩이로 꼬리를 살짝 흔들어요.		1	0
12	동생이 가위로 색종이를 예쁘게 잘라요.		1	0
8달말 단문 합계				
13	나는 가까운 백화점에 큰 모자를 사러가요		1	0
14	형은 넓은 운동장에 축구 시합을 하러가요		1	0
15	엄마가 시장에서 맛있는 과일을 많이 사요		1	0
16	동생이 손으로 무거운 가방을 번쩍 들어요		1	0
17	언니가 큰 책상에서 재미있는 책을 읽어요		1	0
18	나는 파란색 색연필로 예쁜 그림을 그려요		1	0
9달말 단문 합계				

<부록 1> 문장 따라 말하기 검사지(계속)

19	나는 목이 아프면 따뜻한 보리차를 마셔요 (조건연결)		1	0	
20	나는 겨울이 되면 항상 눈사람을 만들어요 (조건연결)		1	0	
21	언니가 손을 씻고 예쁜 손수건으로 닦아요 (시간연결)		1	0	
22	엄마가 바닥을 쓸고 깨끗한 걸레로 닦아요 (시간 연결)		1	0	
23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크게 하품을 하세요 (이유연결)		1	0	
24	형이 많이 아파서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요 (이유연결)		1	0	
9달말 접속문 합계					
25	할머니는 봄이 빨리 오기를 몹시 기다려요 (명사절)		1	0	
26	아저씨는 농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명사절)		1	0	
27	아빠가 잠을 자는 강아지를 흔들어 깨워요 (관형절)		1	0	
28	할머니가 공부를 하는 언니를 크게 불러요 (관형절)		1	0	
29	엄마가 숙제를 빨리 끝내라고 말씀 하세요 (인용절)		1	0	
30	아빠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부탁 하세요 (인용절)		1	0	
9달말 내포문 합계					
총합계					
오류유형 분석					
	생략	대치	첨가	전위	합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					
합계					

<부록 2 >

문장 따라 말하기 구문 구조

번호	구문구조	문장 성분	검사 문장
1	7 날말 단문	주어-관형어-목적어-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많이 만들어요.
2		부사어-서술어	아기가 따뜻한 우유를 맛있게 먹어요.
3		주어-목적어-부사어-	아버지가 회사를 급하게 뛰어서 가요.
4		부사어-서술어	엄마가 공원을 매일 걸어서 산책해요.
5		주어-부사어-목적어-	누나가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요.
6		서술어	할머니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요.
7	8 날말 단문	주어-관형어-목적어-	고양이가 맛있는 생선을 혼자만 먹어요
8		부사어-서술어	나는 긴 머리카락을 매일 깨끗이 감아요
9		관형어-주어-부사어-	귀여운 동생이 방에서 소꿉놀이를 해요
10		목적어-서술어	작은 형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요
11		주어-부사어-목적어-	하마가 엉덩이로 꼬리를 살짝 흔들어요.
12	부사어-서술어	동생이 가위로 색종이를 예쁘게 잘라요.	
13	9 날말 단문	주어-관형어-부사어-	나는 가까운 백화점에 큰 모자를 사러가요
14		목적어-서술어	형은 넓은 운동장에 축구 시합을 하러가요
15		주어-부사어-관형어-	엄마가 시장에서 맛있는 과일을 많이 사요
16		목적어-서술어	동생이 손으로 무거운 가방을 번쩍 들어요
17	주어-관형어-부사어-	언니가 큰 책상에서 재미있는 책을 읽어요	
18	관형어-목적어-서술어	나는 파란색 색연필로 예쁜 그림을 그려요	
19	9 날말 접속문	조건절(주-부-서)-관형어	나는 목이 아프면 따뜻한 보리차를 마셔요
20		-목적어-서술어	나는 겨울이 되면 항상 눈사람을 만들어요
21		시간절(주-목-서)-관형어	언니가 손을 씻고 예쁜 손수건으로 닦아요
22		-부사어-서술어	엄마가 바닥을 쓸고 깨끗한 걸레로 닦아요
23		이유절(주-부-서)-부사어	아빠가 너무 피곤해서 크게 하품을 하세요
24	-목적어-서술어	형이 많이 아파서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요	
25	9 날말 내포문	주어-명사절(주-부)-	할머니는 봄이 빨리 오기를 몹시 기다려요
26		서술어-부사어-서술어	아저씨는 농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27		관형절(주-목-서)-목적어	아빠가 잠을 자는 강아지를 흔들어 깨워요
28		-부사어-서술어	할머니가 공부를 하는 언니를 크게 불러요
29		주어-인용절(목-부-서)	엄마가 숙제를 빨리 끝내라고 말씀 하세요
30	-서술어	아빠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부탁 하세요	

Performance Ability of Sentence Repetition and Error Patterns in Children Aged 4 to 6

Kim, Tae Sook · Chung, Sung Moon · Kwon, Soon Woo

Daegu University · Kosin University ·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assessment of structure capability and the basic material for language therapy for children by making an suitable analysis. It gives us performance capability in sentence repetition speaking as well as error patterns resulted from sentence repetition speaking for 4 to 6 age children and has been made for children who reside in Gimhae from March to April in 2013. The result showed that in the sentence repetition speaking ability according to length along with age increase, the age 4-5 group increased but the age 5-6 group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ntence repetition speaking ability according to age and sentence structure 4-5 age group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ut 5-6 age group, no difference. And complex sentence ability was higher than simple sentence ability in 9words length. The analysis of error patterns represented that the children included in 4 to 6 age group had a high number of error on the omission, substitution, addition and displacement in the order. In omission, 4, 6, 5 age in order had a high error patterns. In substitution, 6 age had higher than 4-5 age. There was a significant result in subject, object, predicate, relative, Adverbial-omission, predicate-substitution and Adverbial addition in the analysis of error patterns according to sentence composition. The 4-6 age group had the most frequent error patterns in Adverbial omission and second more frequent in predicate-substitute. Especially, 6 age made a higher error patterns than 4-5age. Therefore, this study obtained the result was similar to that of Van Riper, 1984 that the basic structure development was made before or after 5 age in that it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4 and 5 age. Accordingly, language intervention shall be made by dint of considering 4-5 age difference for the purpose of making structure ability development enough to use a string of sentences with the children to own language retard and it needs to make related study deeply.

Key Words : grammar, syntax, grammatical relation, transformation

논문 접수: 2016. 09. 05 심사 시작: 2016. 09. 10 게재 확정: 2016. 10. 09